# 이날까지 자기를 형성시켜 온 이름 없는 참자기를 못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 A13면에서 계속

여러분한테 알려 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방편을 쓰신 거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지마는 아는 사람은 그 말을 안 해도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좇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좇아가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 천백억화신이라니 아니, 그 스님이 열로 되면 아니 되나, 만으로 되면 아니 되나? 이 공간에 꽉 찼는데 그 스님이 하나 빠졌다고 줄어들 수 있을까? 그러니 그 스님은 부처이신 거라. 산 부처라. 산 불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닷물에서 물 한 그릇 뚝 떠서 줬단 말이야, 목마른 사람한테. 그 식이야. 그러면 그 바닷물이 줄었겠습니까, 늘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물 한 그릇 갖다가 들이부었는데도 아니, 거기 두드러집디까?

이렇게 자재력이 있고 이렇게 광대무변한 이 법을 여러분은 그 도리를 모르고 만화로만 생각하고 그 말귀만 따라서 좇아다니지, 색을 보고 좇아다니지, 부처님이 돌을 던지고 "저거 뭐냐?" 하면 돌 굴러가는 걸 보고 그 돌을 쫓아갈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돌이 이렇게 이렇게 됐다 하면 돌인 줄 안다 이겁니다, 응?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는 걸 알아야 될 텐데, 종을 울리면 종 울리는 소리만 듣고 그걸 소리라고 하거든. 그걸 듣는 거라. 종 치는 거하고 소리하고 듣는 거야. 그 소리만 좇아다니다가 뭘 합니까? 그 뜻을 좇아야지.

우리가 지금 향 하나 꽂고 향 피우는 것도 바로 법문이요, 여러분은 말을 해야만이 법문으로 듣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하나 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말을 해도 함이 없고 이걸 들었어도 든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든 이 자체의 근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말, 이것이 성품 따라서 어디서 나오는가? 그 뜻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 뱃속도 알면…. 예를 들어서 자기 뱃속을 자기가 알아야 내 뱃속도 알 수 있고 또 역대의 부처님 뱃속도 알 수 있고 그 뜻을 알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이 우주의 섭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맘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열쇠 아닌 열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가정에서 어떠한 불화가 일어나도, 내가 항상 당부하는 것은 아무리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화목 화목 화목, 죽을 때까지 화목, 화목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거와 같이, 세상에 해 보고 싶은 거 다 해 보고 나니까 모든 게 시들한 거라. 여기에 앉아 계신 어느 분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 재밌게 애들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여자를 얻어 가지고는 나가서 영 돌아본 체를 안 합니다. 야, 돈도 다 까불지 그냥, 아주 그냥 매기단을 칩니다.

그래서 "얘야, 주인공에 맡겨 버리고 가만 둬라. 저 하고 싶은 대로 이 줄을 늦춰 줘라, 늦춰 줘. 가는 대로 늦춰 줘라. 이 마음과 마음의 줄은 남편이라는 거하고 아내라는 거하고 줄이 있다. 이 줄을 그냥 늦춰 줘라. 그리고 자비로써 그냥 놔둬라. 여기다 맡기고 놔 둬, 그냥." 그랬더니 한참 가다가, 이 줄은 쥐고 있으니까, 여기에 같이 가설이 돼 있으니까,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싫증이 났어, 그만. 허허, 고생만 되고. 야, 이거 그냥 버린 것도 아깝고 그냥 싫증이 나 버리니까 그 줄이 인제 슬슬 늦춰진단 말이야, 돌아오느라고.

그러니까 돌아오는 대로 줄이 느근하게 되니까 그냥 그것만, 느근한 대로만 잡아당기는 거라. 아, 그러니까 집으로 쏙 들어왔는데 바짝 쥐었단 말이야. 허허허. 그러니까 너무도 사랑하거든. 가서 경험을 하고 보니까 "야, 세상에 손이 들이굽지 내굽지 않더라. 세상에 다니면서 봐도 너 같은 아내가 없고, 너같이 예쁜 아내가 없고, 마음씨 그렇게 착한 아내가 없더라." 이러고서는 그냥, 그냥 위에다 놓는 거라, 응? 그러니 전자의 애정이, 없던 애정도 솟아 나오는 거라.

> **여러분이 겁을 거쳐오면서 살던 습에 의해 속지 마시고 어떠한 문제든지 조용히 좋은 말로, 하다가도 안 되면 딱 멈추고 주인공에다 맡겨 놓는 그런 사람이 되신다면 화목이 깃들고, 복이 들어오고, 공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이 주인공에 다, 주인공 줄에다가 모든 것을 놓게 되면 아무리 나쁜 사람도 참 착해져. 그리고 사랑을 받게 돼. 아무리 아들이 나쁘고 도둑질을 하고 그래도 전자의 인연줄로 인해서 그런 거니까 그 인연줄을 녹여 주기 위해서는, 그저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마라. 여기 줄만 쥐고선 그냥 다 놔두면, 그렇게 믿고 놔두면 그냥 저절로 녹아 버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야. 줄을 쥐고선 그걸 붙들고 바들바들 뛰니까, 이게 가는 거 그냥 당기고 당기고 하니까 가 보질 못하는 거야. 가서 그냥, 이것을 좀 느긋하게 두면 그냥 갔다가 한번 휘 돌아서 '아, 이런 게 이런 거로구나.' 그러고는 다시는 안 갈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 보고 싶은데 보질 못하게 딱 쥐고서는 늘어지니까 그냥 신경질을 내고 온통 야단이 나는 거죠.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탁 던져요, 응?

우리한테 많은 재산도, 물건 이것도 본래 무면목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깨끗하게 다 듬고 분 바르고 이렇게 했어도 이것은 가짜야.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이건 가짜다 이거야. 그러니 자기라고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나 자기, 가(假)자기가 있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있으니 가자기가 모든 거를, 부처님의 뜻을 잡고서 모든 거를 놔라 이거야. 놓되, 여기서는 분명히 놓는다고 하고 가서는, 집에 가선 악을 쓰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러니 어떡합니까? 송구스럽단 말입니다. 내가 다 민망스러워.

우리는 부모를 욕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처님을 욕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스님들을 욕되게 해서도 아니 된다 이겁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부처님의 그 뜻을 잡고서 나갈 수 있다면 그 법망의 줄이 바로 나한테, 우주 전부에 바로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동해나 서해나 이런 바다에도 저 태양의 광명을 받고서, 광합성으로서 이렇게 받고선 생명들이 살고, 먹을 건 먹고 보이지 않는 그 생명들을 주워 먹고 이렇게 사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물 바닥 얘기했죠? 그 캄캄하고 차디찬 물바닥에서, 태양도 들어오지 않는 그 바닥에서도 에너지를 먹고 산단 말입니다. 왜? 그 바닥에서도 바로 이 태양에 가설은 돼 있거든. 마음의 가설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색을 취하지 않고 마음공부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곁에 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거야. 우리도 예전에 그랬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어느 뼈다귀를 봐도 "저것이 내 부모인지도 모르고 저 뼈다귀가 내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할머니인지도 모르고 내 형제인지도 모르고 내 자식인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으냐? 내 자식 아닌 것도 없고 내 부모 아닌 것도 없으니 너희들은 내가 여기 이 뼈다귀에다 절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하문하신 적이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서 그렇게 깔봐서도 아니 되고 못 믿어서도 아니 됩니다. 자기를 형성시켜서 이렇게, 연(年)으로 쳐도 아니 되는, 헤아릴 수 없는 광년을 그렇게 끌고 이날까지 오다가 이렇게 인간으로까지 형성시켜 온 자기의 주인공 자체, 이름 없는 참자기를 못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한 보배 속에서, 그 속에는 별의별 게 다 있고 천차만별로 이 우주에 있는 거는 다 그 속에 있습니다. 야, 밥을 달라면 밥이 그 속에 있고 말입니다, 옷을 달라면 옷이 그 속에 있고, 돈을 달라면 돈이 그 속에 있고 말입니다, 보석을 달라면 보석이 그 속에 있고,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이 두 손에 말입니다, 없는 게 없이 놓여 있죠. 그 표시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머리에도 부처님, 그저 여기도 부처님 저기도 부처님, 손도 이 손 저 손, 그저 잔등이도 손, 겨드랑에도 손, 그렇게 많이, 뒤에도 눈 앞에도 눈, 그냥 어디에 눈 안 달린 데가 없고 손 안 달린 데가 없고 부처님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그게 표시지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끝으로 한마디 당부 말씀 해 드릴 거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삼독의 욕심으로, 또는 욕심으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욕심을 버렸다 하더라도 하나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억겁을 거쳐 오면서 살아나오던 그 습이 있습니다. 뱀의 모습이든지 곰의 모습이든지 원숭이의 모습이든지 고양이의 모습이든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거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잠재해 있던 그 습이 공부를 하려면 그냥 쏟아집니다. 꿈에 나오는 한정 없이 쏟아지는 그 모습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인간이 되기까지 거쳐 나올 때에 살던 그 습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딴 남이라고 생각하고 '꿈에 이런 걸 봤으니 어이구, 내가 언짢지.' 왜 언짢습니까? 예?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머리 검은 중생은 그것을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을 한번 구해 주면 그걸 끝끝내 갚고 맙니다. 그 반면에 만약에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그걸 찾으려고 그런 짐승을 시루에다 찐다 이러면 꼭 갚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아는 부처님께서는, 즉 말하자면 불보살들은 고양이 모가질 쥐고선 "너, 한마디 이르면 이걸 안 죽이고 한마디 이르지 못하면 이걸 죽인다." 했는데 한마디 이르지 못해서 그걸 죽였어도 죽인 게 아닙니다.

공부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마디 하문해서 던지고서는 그 인연 따라서 그거를 쥔 남전 스님도 말입니다, 얼마나 그게 좋은 일입니까? 그 당시에 바로 고양이의 무명을 치고, 고양이의 아름다운 그 마음을 인간으로서 환토를 시켰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이 모두가, 하나하나가 너무나 성스럽고 갸륵하고 참, 이 고마운 것을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그러니 여러분이 겁을 거쳐 오면서 살던 그 습에 의해서 속지 마시고, 환상을 보고 속지 마시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속지 마시고, 꿈이 나빠서 안 되느니 되느니 이렇게 속지 마시고, 또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어떠한 문제든지 조용히 좋은 말로, 하다가도 안 되면 딱 멈추고, 말하지 말고 여기다가 맡겨 놓는 그러한 사람이 되신다면 큰소리가 영 없고 화목이 깃들고 복이 들어오고 공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악 쓰고 상 찌그리고 온통 욕하고 그러는 게 제일 싫거든요. 저는 그것이 참 사무칩니다.

옛날에 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무도 그런 걸 많이 봐 왔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고등동물이라면서 어째 저렇게 마구…, 저러다가도 둘이 또 살아. 아이, 생각을 하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나 같으면 그냥 은금이 쏟아진대도 저거 할 텐데 아, 그래도 그냥 칼로 물 베기다 이거야. 그러면 칼로 물 베기는 좋은데, 그것을 다 놔 버리고 칼로 물 베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잠재해 있습니다. 그게 잠재해 있으면서 차고 차고 잠기고 잠겼다가 나중엔 폭발이 됩니다, 또. 그러니 두고두고 있다가 또 폭발이 되고 두고두고 있다 더 쌓여 가지고, 모아 가지고 폭발을 시키고 그럽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아지는 것도 없고 버리는 것도 없으니 여여하게, 생활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속을 썩인들 얼마나 썩이겠습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간다고…. 중노릇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편안하게들 사십시오.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한 생 이렇게 알뜰하게 관하고 정진하고 살아서, 세세생생을 우리가 보람 있게 참, 부처님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면서도 그 모습들이 다 나 아님이 없이 될 수 있다면, 당당하게 내가 지금 태어나려면 태어나고 죽으려면 죽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권을 가질 때 그 보람이란 정말이지 눈부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걸로써 끝을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6년 9월 4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일일시호일

복막염 반복에 수차례 생사기로…
가족걱정에 눈물

캄보디아 출신 찬디라씨 장천공으로 4차례 수술…위험 고비 넘겨
체중 40kg대로 줄어…기약 없는 치료에 병원비는 3000만원 훌쩍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